

저자 (Authors)	신숙, 주경미
출처 (Source)	미술사연구 , (25) , 2011.12, 204-208 (5 pages) Misulsa Yeongu : Journal of Art History , (25) , 2011.12, 204-208 (5 pages)
발행처 (Publisher)	미술사연구회 Association Of Ar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1599
APA Style	신숙, 주경미 (2011).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미술사연구, (25), 204-20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宋代 ‘倣古器物’의 영향」

발표자: 신숙 · 홍익대학교 강사

질의자: 주경미 · 서울대학교 강사

—질의

본 학술대회 주제인 <고려의 미술과 송·요·금·원과의 관계>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미술사학계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예사 분야에서도 도자기를 중심으로 고려와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여러 학지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그중에서도 송대에 유행한 古銅器 및 古玉器 수집과 완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倣古器物’을 중심으로 고려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송대 골동품 수집의 유행과 함께 당시 공예품에 등장한 ‘復古’, 혹은 ‘倣古’, ‘擬古’ 양식에 대해서는 1996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렸던 특별전 <Possessing the Past>가 시발점이 되면서, 중국, 대만, 미국의 미술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구 학계의 연구는 기존의 중국 공예품 연구가 진위 감식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관점에서 한층 발달하여, 현존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의 다양한 황실 수장 공예품들과 여러 가지 옛 물건들을 수집하여 기록해 놓은 서적들과 그 삽화에 대한 상관관계 및 물건 자체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송대 복고양식 공예품들에 대한 외국 학계의 다각적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고려시대 공예품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절대연대를 가진 유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려시대의 공예품 연구에서는 이러한 송대 공예품들과 서적과의 비교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본 발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 문제이다. 제목에서 발표자는 ‘倣古器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도 이 용어는 본 발표에서 ‘옛 것을 모방한 기물’이라는 뜻의 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옛 기물을 모방한다’는 동사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옛 것을 따른다는 의미의 용어로는 ‘倣古’ 이외에도 ‘擬古’, ‘尙古’, ‘復古’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倣古’라는 용어는 唐代부터 사용되기 시작하긴 하지만, 대체로 清代 문인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된 용어이다. 한편 미술사나 문학사에서는 ‘복고 양식의 유행’, 혹은 ‘擬古風’ 등의 용어도 종종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차이점, 혹은 같은 점, 그리고 어떠한 용어를 어떤 때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비교하여 밝혀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발표자는 본문 제 III장에서 송대 복고 양식 공예품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주요 공예품들을 향로와 병, 그리고 문양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향로와 문양에 대해서는 이미 이용진 선생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있지만, 병에 대한 연구는 국내 연구가 미진한 편이었다. 한편 문양에서는 도철문와 뇌문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 발표문에 기술된 예 이외의 다른 기형이나 문양에서 송대 복고풍 공예품의 영향이 보이는 또 다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뇌문의 경우에는 古銅器의 영향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석기시대 토기에서부터 뇌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뇌문의 유무만으로 古銅器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

세 번째로 발표자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靑磁鼎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정을 예로 들면서, 이들과 같이 ‘원형에 가깝게 재현된 예는 禮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추정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에는 『박고도』와 같은 圖譜類 외에 비교할 만한 송대의 실물 공예품의 존재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기의 예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네 번째로 발표자는 휘종 연간의 예기 전래 및 사신 왕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송대 복고풍 양식의 고려 공예품 제작 시기가 12세기 전반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당시 고려에 전래된 송대의 복고 취향은 직접적인 공예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사신 왕래에 의한 인적 교류 및 『박고도』를 비롯한 圖譜類 서적 유입 등 복합적 경로로 고려에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송대 복고풍 양식을 따른 고려의 청자나 금속기들의 제작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년할 수 있는가? 본 발표문에서는 각 작품의 구체적인 편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시대가 비교적 늦은 관경변상도나 이제현의 영정에 등장하는 향로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적 편년 문제와 그림으로 표현되면서 일어나는 像(image)의 왜곡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좀 더 대상 유물의 편년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고려 공예품의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표자가 제IV장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존하는 고려의 송대 복고풍 양식의 공예품들은 수가 많지 않으며 기형도 한정되어 있으며, 재질 면에서는 도자기가 주류이

다. 이렇게 현존예가 드문 것을 과연 ‘고려시대 방고기물의 제작과 유행’으로 볼 수 있는가? 오히려 고려시대 일부 상류층에 제한된 특수 취향의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특히 도자기에서 이러한 양식의 예들이 많은 것은 송대 복고풍의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영향 아래에서 제작된 송대 磁器의 수입에 의한 2차적 영향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에서 송대 복고풍 양식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고려시대 말기 공양왕대의 銅鐵에 관한 금지 상소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현존 고려시대의 공예품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 현존하고 있으며, 銅鐵금지 상소가 올려진 공양왕 3년(1391)은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조선으로의 권력 이양을 시작한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송대 복고풍 양식의 공예품 제작은 고려시대 공예품의 일반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매우 특수하며 제한된 문화적 환경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공예품들은 송과 고려의 문화 교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고려시대 공예사, 특히 금속공예사의 이해에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__답변

질의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논문을 쓰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용어의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용어들이 쓰입니다. 대체로 그 구분이 모호하고,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고려와 송대였기 때문에, 송대 명문을 참고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倣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중화권의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倣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람 인변의 ‘倣’자를 쓰는데, 이것과 제가 쓰는 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국내 회화의 倣作繪畫의 경우에도 이 ‘倣’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器物’이라는 용어는 저도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倣古’라는 용어에 ‘방고옥기’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器物’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용어에 대해선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 견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표문 외에 다른 기형이나 문양에서 송대 복고풍 공예품 영향이 보이는지, 혹은 그런 예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개연성이 있을

만한 예를 보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워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뇌문에 대해서 신석기시대 토기부터 등장한다고 지적하셨는데, 물론 뇌문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저는 뇌문의 유행이 잦아들면서 오랜 시간 잊고 있다가 이 고대청동기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다시 유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양의 선택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천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고기물’이 문양에 복고풍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정형청자에 대한 형식과 양식 구분의 한 선례가 필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려 ‘방고기물’에 대한 인식과 해석, 송과의 비교연구에 대해서 이전에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세 번째 예기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원형정의 비교자료로 제시한 송대 정화정도 제기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고, 상주시대 기물의 원형을 재현했다면 방형정도 원형정과 마찬가지로 예기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사이즈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방형정은 18.4cm입니다. 이 크기는 博古圖에 나오는 제가 비교한 상소 규정과 그것이 5寸 9分인데, 宋尺으로 환산하면 거의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크기도 박고도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고, 그 안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똑같이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기로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문헌 기록을 근거로 제가 언급한 12세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시작이 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방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제작, 그리고 일상 기물에까지 사용했다는 명확히 그 시대만큼은 그렇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물로 전하는 유물과 회화 속의 표현, 이런 것들로 봐서 정형향로와 같은 일부 기형이 고려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정형향로의 경우에는 조선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좀 시대가 뒤로 가기는 하지만 회화에 보이는 예들도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방고기물’의 시기구분은 생각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형이 새롭게 창안된 경우에는 그 원형에서 모방된 것이 반드시 시기가 선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고’는 원형에서 변화된 이후 시기에도 또 다시 원형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물의 연원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시기적 선후와 직결 시기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가 방고기물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윤곽을 살펴본 것입니다. 시기와 편년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방고기물’은 문헌기록을 참고했었고, 송대에 비해서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몇몇 기형이 유행한 것으로 봐서 공예사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문의 말미에 고려 방고기물의 인식과 의의에서 여러 가능성과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질문과 일부분 같은 견해입니다. 다만 송대 ‘방고도자’ 직접 유입은 발표 원고에서도 다뤘고, 선생님께서도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물론, 충분히 방고도자 직접 유입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고려 ‘방고기물’에 보이는 자기가 모두 송대 자기의 원형과 완벽히 일치하게 때문에 고려만의 특징은 없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형에 가깝게 재현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형정이나 방형정, 이런 유행은 송대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고기물’의 공예사적 위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고려시대 공예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성격들을 이해하고, 대외교섭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의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